Korean J Women Health Nurs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 22 No. 3, 117-127, September 2016
pISSN 2287-1640 | eISSN 2093-7695
http://dx.doi.org/10.4069/kjwhn.2016.22.3.117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

정혜민[1] · 김혜영[2]

군산간호대학교[1], 전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2]

Factors Influencing Parental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eong, Hye Min[1] · Kim, Hye Young[2]

[1]Kunsan College of Nursing, Gunsan
[2]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degree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al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atisfaction of mothers who had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76 mothers. All of mothers had preschool children, aged 2 to 6 years old, and attended one of 3 day care centers or 2 Kindergartens located in J city. Data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contained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atisfa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level of parenting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as 5.38±0.79.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ffective parenting efficacy were verified factors influencing parental satisfaction. These factors accounted for 41.4% of parental satisfact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ffective parenting efficacy have the biggest impact on paren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 aimed at improving parental satisfaction of mothers who have preschool children.

Key Words: Parents, Person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stress, Self-efficacy, Behavio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발달단계 중 미취학 연령인 학령전기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급속한 발달을 보여주는 시기이다[1]. 이 시기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의사소통, 직관적인 판단으로 고집부리기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는 다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보다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증가하고,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 부모는 아동의 강력한 모델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성, 도덕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어머니는 직접적이고 광범

주요어: 부모, 만족도, 심리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행위

Corresponding author: Kim, Hye Young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54896, Korea.
Tel: +82-63-270-4618, Fax: +82-63-270-3127, E-mail: tcellkim@jb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정혜민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Feb 15, 2016 / Revised: Mar 22, 2016 / Accepted: Mar 25,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위하며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주 양육자로 아버지의 역할보다 강조된다[3].

최근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모역할만족도란 결혼한 성인이 출산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역할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보람, 그리고 만족감을 의미한다[4]. 이러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경우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통해 일상적인 긴장과 갈등요소가 경감되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서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5]. 즉 부모역할만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5,6].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7-10], 양육효능감[6,11,12], 양육행동[13-15] 등이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담감이나 불편감으로[16] 부모역할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8]. 실제 많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취나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부모의 개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를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되며 그 결과 아동의 정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역할만족도, 나아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에게 동기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보일 때, 부모 역할 수행의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자녀의 요구가 성가시고 거부하고 싶은 반응이 보이며 일상적 긴장과 갈등요소들이 지속되면 부모역할 수행에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부모역할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자신의 능력 수행에 대한 믿음인 양육효능감[17]은 양육 상황에서 발생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기술이므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1].

양육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을 대하는 행동방식으로 자녀를 합리적, 애정적, 성취 지향적으로 양육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제를 덜 나타내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고[13],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15], 반대로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진다[14].

이렇듯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또는 양육행동 등이 있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성 관련 변인과 아동 관련 변인들을 보고하고 있다[13]. 모성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9,13], 학력[13,18], 경제상태[13,18], 취업여부[19,20] 등이, 아동 관련 변인으로는 성별[21], 기질[13,18], 자녀의 수[19], 아동의 건강상태[18] 등의 요인들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한 모성 관련 요인이나 아동 관련 요인들은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변인들만을 고려하여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영향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역할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2~6세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 중 편의 표집법에 따라 추출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데 유의수준(.05), 중간 효과크기(.15), 검정력(.80), 예측변수 21개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160명이 적절하다. 이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18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90.0%였다. 180부 중 불완전한 자료 4부를 제외한 176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이 메일을 통해 도구사용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6]이 개발하고, Chung 등[22]이 번안한 한국어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축약형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 12문항(부모영역),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12문항(부모-자녀관계 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2문항(아동영역)을 포함한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36문항 중 33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이고, 22번 문항은 1점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에서 5점 '매우 좋은 부모이다'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32번 문항은 1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에서 5점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5점으로 나뉘었고, 33번 문항은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을 묻는 문항으로 1점 '1~3개', 2점 '4~5개', 3점 '6~7개', 4점 '8~9개', 5점 '10개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22번과 32번 문항은 역코딩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였으며 위 연구[22]에서 Cronbach's α는 .76~.84의 분포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하위척도인 부모의 고통의 Cronbach's α는 .84였고,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경우 .86이었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 .86이었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23]이 개발한 부모양육효능감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과 Chung[24]이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효능감(9문항)과 정서적 효능감(7문항)으로 구성되어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배점하는 5점 Likert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효능감인 7문항인 4, 5, 6, 9, 10, 13, 16번 문항들은 역코딩하였다.

Shin과 Chung[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하위척도인 인지적 효능감의 Cronbach's α는 .70이었고, 정서적 효능감의 Cronbach's α는 .73이었다.

3)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25]가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척도(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KMBI)를 Kim[26]이 유아기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척도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긍정적 양육행동인 합리적인 지도(6문항), 애정(8문항), 적극적 참여(5문항)와 부정적 양육행동인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과보호(7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배점하는 5점 Likert척도이고, 긍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Kim[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7~.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하위척도인 긍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α는 .92였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α는 .82였다.

4)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lverson과 Duke[4]이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를(Parent Satisfaction Scale, PSS)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Seo와 Lee[27]이 유아기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부담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1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을 배점하는 7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8, 12, 18번 문항은 역코딩처리 하였다.

Seo와 Lee[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본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4-03-034)의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J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유치원에 방문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관에 본 연구참여와 관련된 공지 사항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교육이 열리는 날을 확인한 후 해당 날에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아동의 어머니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 가능성, 자료작성방법 및 소요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연구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최솟값, 최댓값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07±4.10세(범위: 26~47세)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만 35세 이상이 59.7%(105명)이었다. 결혼기간의 평균은 6.68±2.70년(범위: 2~15년)으로, 6~10년 사이가 56.3%(99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결혼형태는 남편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92.6%(163명)였고, 학력은 대졸 이상은 53.4%(94명)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가 61.4%(108명), 직업이 없는 대상자(주부 포함)는 60.8%(107명)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61.9%(109명)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70.5%(124명)가 건강한 편으로 보고하였고, 29.5%(54명)이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기질에서는 77.8%(137명)가 순한 편이라고 하였다. 미취학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은 남아가 51.7%(91명), 여아가 48.3%(85명)이었다. 미취학 자녀의 연령은 만3세가 23.9%(42명), 만 6세가 23.3%(41명)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 자녀수는 한명이 81.3%(14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건강상태는 89.8%(158명)가 건강하다고 보고하였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점수는 어머니의 연령(t=-2.45, p=.015)과 어머니가 지각한 건강상태(t=3.23, p=.002)와 어머니의 기질(t=2.32, p=.024)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가 34세 이하인 어머니에 비해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어머니에 비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어머니의 기질에서는 '순하다'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까다롭다'라고 응답한 어머니에 비해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 중 결혼기간,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 직업, 지각한 경제상태 그리고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연령, 미취학 자녀수,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점수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Paren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Parental satisfaction	
			M±SD	t or F (*p*)
Mother age (year)	≤34 ≥35	71 (40.3) 105 (59.7) 35.07±4.10	5.20±0.74 5.50±0.80	-2.45 (.015)
Duration of marriage (year)	1~5 6~10 ≥11	64 (36.3) 99 (56.3) 13 (7.4) 6.68±2.70	5.22±0.84 5.48±0.73 5.42±0.88	2.25 (.108)
Husband's residence	Living together Don't live together	163 (92.6) 13 (7.4)	5.39±0.79 5.23±0.81	0.73 (.478)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82 (46.6) 94 (53.4)	5.29±0.79 5.46±0.78	-1.38 (.169)
Religion	Yes No	108 (61.4) 68 (38.6)	5.36±0.81 5.42±0.75	-0.54 (.591)
Occupation	Yes No	69 (39.2) 107 (60.8)	5.43±0.77 5.35±0.80	0.72 (.467)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57 (32.4) 109 (61.9) 10 (5.7)	5.51±0.67 5.33±0.84 5.21±0.79	1.23 (.294)
Mother's health	Healthy Moderate	124 (70.5) 54 (29.5)	5.51±0.73 5.07±0.84	3.23 (.002)
Mother's temperament	Gentle Difficult	137 (77.8) 39 (22.2)	5.46±0.77 5.12±0.80	2.32 (.024)
Children's gender	Male Female	91 (51.7) 85 (48.3)	5.43±0.70 5.33±0.87	0.89 (.375)
Children's age (year)	2 3 4 5 6	34 (19.3) 42 (23.9) 30 (17.0) 29 (16.5) 41 (23.3)	5.57±0.74 5.20±0.78 5.46±0.88 5.33±0.93 5.40±0.66	0.79 (.830)
Number of children	1 ≥2	143 (81.3) 33 (18.7)	5.36±0.82 5.47±0.66	-0.84 (.400)
Mother's perceived children's health	Healthy Non healthy	159 (89.8) 18 (10.2)	5.42±0.77 5.01±0.87	1.91 (.070)

3.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2.42±0.42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부모의 고통 2.76±0.58점,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2.11±0.47점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2.39±0.52점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36±0.39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인지적 효능감은 3.37±0.43점, 정서적 효능감은 3.34±0.55점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23±0.32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긍정적 양육행동은 3.71±0.54점, 부정적 양육행동은 2.52±0.45점이었다. 부모역할만족도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 중 5.38±0.7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47, p <.001) 나타냈다. 양육 스트레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37, p <.001),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Table 2. Level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al Satisfaction (*N*=176)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arenting stress	2.42±0.42	1.36	3.31	1~5
Agony of parents	2.76±0.58	1.33	4.08	1~5
Dysfunction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2.11±0.47	1.17	3.42	1~5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ren	2.39±0.52	1.25	3.42	1~5
Parenting efficacy	3.36±0.39	2.02	4.36	1~5
Cognitive efficacy	3.37±0.43	1.67	4.44	1~5
Affective efficacy	3.34±0.55	1.71	4.71	1~5
Parenting behavior	3.23±0.32	1.67	4.03	1~5
Positive parenting behavior	3.71±0.54	1.62	4.89	1~5
Negative parenting behavior	2.52±0.45	1.52	3.75	1~5
Parental satisfaction	5.38±0.79	2.94	7.00	1~7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48, p <.001), 아동의 기질 역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33, p <.001) 나타냈다.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54, p <.001)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35, p <.001), 정서적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51, p <.001) 나타냈다. 양육행동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26, p <.001)나타냈고,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r=.48, p <.001),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 p <.001)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Variables (*N*=176)

Variables	Parental satisfaction
	r (p)
Parenting stress	-.47 (<.001)
Agony of parents	-.37 (<.001)
Dysfunction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48 (<.001)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ren	-.33 (<.001)
Parenting efficacy	.54 (<.001)
Cognitive efficacy	.35 (<.001)
Affective efficacy	.51 (<.001)
Parenting behavior	.26 (<.001)
Positive parenting behavior	.48 (<.001)
Negative parenting behavior	-.40 (<.001)

5.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가 지각한 건강상태, 어머니의 기질,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의 하부영역인 부모의 고통,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지적 효능감, 정서적 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의 하부영역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의 하부영역인 부모의 고통,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지적 효능감, 정서적 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의 하부영역인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1로 2값 근처에 있어 자기 상관이 없이 오차 항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연령(만 35세 이상=1, 만 34세 이하=0)과 어머니의 건강(건강하다=1, 보통이다=0)과 어머니의 기질(순하다=1, 까다롭다=0)은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긍정적 양육행동(β=.334, p <.001)과 정서적 효능감(β=.289, p <.001)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은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41.4% 설명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al Satisfaction (*N*=176)

Variables	B	SE	β	t	*p*
Mother's age (1=≥35 yr) †	.132	.096	.082	1.370	.173
Mother's health (1=healthy) †	.070	.109	.040	0.635	.526
Mother's temperament (1=gentle) †	.194	.120	.102	1.618	.108
Parenting stress					
Agony of parents	-.160	.100	-.118	-1.600	.112
Dysfunction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174	.132	-.113	-1.320	.189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ren	.172	.115	.124	1.500	.135
Parenting efficacy					
Cognitive efficacy	-.026	.139	-.014	-0.183	.855
Affective efficacy	.416	.127	.289	3.278	.001
Parenting behavi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489	.114	.334	4.286	.000
Negative parenting behavior	-.173	.130	-.099	-1.333	.184
		Adj. R^2=.414, F=13.355, p<.001			

SE=standard errors; † Dummy variable : Mother age (1=≥35,0=<34), Mother health (1=healthy 0=Moderate), Mother temperament (1=gentle, 0=difficult).

논 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긍정적인 가족체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부모역할만족도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인데,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 점수가 5.96점[28]과 5.93점[2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존재와 양육 과정을 통해 얻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행복이 부모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20].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건강과 어머니의 기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은 만 35세 이상 어머니와 만 34세 이하 어머니가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만 34세 이전에 출산한 부모보다 만 35세 이후에 출산한 늦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모역할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9].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건강은 건강한 어머니와 건강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어머니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어머니가 부모역할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더 잘하고, 정서적으로도 더욱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8].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기질 역시 어머니의 기질이 순할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질과 부모역할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어머니의 기질은 자신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29]에서 기질이 순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결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역할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 어머니의 기질과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취업여부, 학력, 결혼기간, 남편거주여부, 종교,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부모역할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3]와 같은 결과이며, 이는 취업한 어머니에게 있어 일에 대한 직업만족도나, 대리 양육자에 대한 만족, 경제적 성취감 등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학력, 결혼기간, 남편거주여부, 종교, 경제 상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는 점수 차이가 없다고 제시한 연구[28]를 지지하

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일반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지원과 같은 지지체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2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다양한 지지체계를 고려하여 부모역할만족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동 관련 요인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자녀수, 건강상태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자녀의 기질이라는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1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으므로 성별, 자녀수, 건강상태의 차이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19].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면 어머니의 연령, 건강, 기질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고, 그 외의 취업여부, 학력, 결혼기간, 남편거주여부, 종교, 경제상태, 아동의 성별, 연령, 자녀수, 아동 건강에 따라서는 부모역할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료를 개발할 때 부모역할만족도에 점수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고려해야겠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양육하는 자녀들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하였기에 형제자매 중 영아기 또는 학년전기 및 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도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또한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42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부모의 고통 평균은 2.76점,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2.11점이었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2.39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2.30점으로[10], 뇌성마비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본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이 2.55점으로 나타나[7] 본 연구결과의 2.42점과 비교해 볼 때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 경제 상태는 중간 이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Noh[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되고,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이었으며 인지적 효능감은 3.37점, 정서적 효능감은 3.34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양육효능감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6].

또한 양육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3점이었고 긍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71점(합리적 지도 3.77점, 애정 3.85점, 적극적 참여 3.57점), 부정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2.52점(권위주의적 통제 2.53점, 과보호 2.43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지도 3.86점, 애정 3.82점, 적극적 참여 3.32점, 권위주의적 통제 2.38점, 과보호 2.29점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29].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행동, 양육효능감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역할만족도를 41.4%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역할만족도가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바람직한 부모 자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자녀를 챙겨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중에서도 정서적 효능감이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12]와 유사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와 정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던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상관관계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 모두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어머니로서의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7]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8]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 경제상태 정도는 중간 이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

지하여 선행연구[7]보다 높았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반대로 낮았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력이나 경제상태에 대한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력과 경제상태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던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 건강 상태와 기질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기질을 파악하는 질문의 구성이 너무 단순하여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기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효능감이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서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 취학 전 아동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어머니와 관련된 양육 관련 변인들만 측정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는 미취학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양육하는 자녀들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자로 하였기에 형제자매 중 영아기 또는 학년전기 및 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도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관련변인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 지역의 미취학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적 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여 부모역할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정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인 정서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행동과 정서적 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를 41.4%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효능감이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모자조 모임이나 지역사회 내 교육을 확대하여 어머니들에게 정서적 효능감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방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사회경제적 계층 및 연령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성장 발달함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에서 다른 양상이 보고되고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자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ockenberry MJ, Wilson D. Wong's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9th ed. Kim YH, Kwon BS, Nam HK, translator. Philadelphia, PA: Mosby; 2013.
2. Creasey G, Reese M.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pa-

renting hassles: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symptoms, nonparenting hassle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96;17(3):393-406.
3. Song SM, Song JS. A study on parenting belief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7;16(5):933-944.
4. Halverson CF, Duke HP.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Touliatos J, Perlmutter BF, Straus MA, editor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1. p. 169-170.
5. Guidubaldi J, Cleminshaw HK. The development of the Ceminshaw 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85;14(4):293-298.
6. Park HS, Kim YY. The effects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parent-child relational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 (3):297-304.
7. Yang YJ. Comparative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role satisfaction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master's thesis]. Asan: Soonchunhyang University; 2005.
8. Noh AM. The influences of parenting stress and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mothers with infant. The Journal of Education. 2009;20(5):35-51.
9. Lee MJ, Kim YM.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al competency,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support between late and young parent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7;49:289-309.
10. Park KI, Oh SE. Effects of active parenting today based on goal attainment theory 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atisfaction in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42(5):659-670.
11. Jeong MH. A study on validity of the parenting efficacy scale-a base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010;7(1):45-58.
12. Kim GH, Lee JM. A study on the structure model of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2011;9(3):19-39.
13. Moon HJ. A study of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practi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1;39(1):205-219.
14. Kim SH.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3;17(4):1-12.
15. Lee JS, Chung MJ.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a parent and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7;45(5):85-94.
16.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5.
17. Bogenschneider K, Small SA, Tsay JC.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7; 59(2):345-362.
18. Ren RX, Hyun OK.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2;40(11):23-37.
19. Kim AN, Kwon YS. Effect of employed mother's work-mother role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0):375-384.
20. Kim IJ, Lee SH. Motherhood ideology and parental satisfaction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5;10(3):1-25.
21. Kim HE, Chung OB. Effect of the empowering parents training program on mothers and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9;20(4):179-193.
22. Chung KM, Lee KS, Park JA, Kim HJ.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27(3):689-707.
23.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8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8 September; Toronto, Ontario, Canada.
24. Shin SJ, Chung MJ.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8;19(1):27-42.
25. Park SY, Lee 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990;28(1):141-156.
26. Kim MS.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5.
27. Seo HY, Lee SH. The effect of father's job satisfaction and family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Family and Culture. 2002; 14(3):27-51.
28. Jung IK. The relating factors on parenting satisfaction among mothers of preschoolers [dissertation]. B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3.
29. Hong GO.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gender, age,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s, and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23(4):5-21.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each has been identified in each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arental satisfaction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 What this paper add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ffective parenting efficacy have the biggest impact on parental satisfaction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re is a ne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with parenting.